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진정한 인내는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것을 넘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조용히 마음속으로부터 견디어 내는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복음 말씀은 그러한 인내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다릴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네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용기를 간절히 청하며 오늘도 복음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녹)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11월 13일 복음 말씀**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5-19

그때에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디오 링크  <http://tinyurl.com/zj85ztq>

11월 둘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연미사 봉헌 - 11/6 (주일)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김중운 세실리아 자매님**(최 주임 신부님 어머니)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이영재 루카 형제 아버지)을 위한 연미사를 지난 주일 (11/6일)에 봉헌 했습니다.

낙엽청소와 감,오렌지 수확 ^^

지난주에 연이어 이번 주일에도 사제관 및 사랑방 앞뜰 낙엽/물 청소를 말끔히 한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최 신부님도 귀국하셔서 함께 청소하고 감과 오렌지도 따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이 정말 맛있게 영글었네요. 다음 주말에도 맛있는 감/오렌지 수확 예정이니 오셔서 드시고 챙겨도 가세요! 사진 몇장 첨부합니다.

기도

투병중에 위독하신 **김현경 스테파니 자매의 고모님, 김영주 자매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의 보살핌속에 큰 고통 겪지 않으시길, 자매님과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11/18)

이번주 금요일 (11/11)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저녁 7시에 (11/18) 청년 마르코복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르코 복음 성서모임이 시작됩니다.** 창세기/탈출기를 미처 끝내지 못한 님들도 이번 마르코복음 성서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 한해서 추후 창세기 탈출기를 마친다는 전제아래 마르코복음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니 관심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신청 바랍니다.

교리상식 / 이것이 궁금해요~

신자분들이 제출한 궁금증에 대해 매 주일 공지시간에 신부님께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십니다. 이번주 교리 상식란의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눕니다. (주보)

Q: 위령기도란 무엇인가요?

A: 이 세상에서 보속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고통 중에 있는 연옥 영혼을 위해 하는 기도를 '위령 기도'라고 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고 연옥의 고통을 덜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우들이 기도와 희생으로 그들이 빨리 천국에 오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식사후 기도

지난 주일 강론 중 신부님께서,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옥의 영혼들이 하느님의 곁에서 하루빨리 평화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며 **식사 후 기도**에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우리가 이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세번 식사 후 잊지말고 식사후 기도를 드리기로 해요~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초기 이민 인물 만나기> 행사 - 11/12 토

얼마전 전달해 드렸던 샌프란시스코 한인 박물관 주관의 '초기 이민 인물 만나기' 첫 강연에 함께 참석할 분들, 연락 바랍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24일 전달해 드린 하모니 이메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초기 이민 인물 만나기> 시리즈 1) "큰 뜻을 품은 큰 부자" 김종림

일시: 11월 12일 (토) 오후 6시

장소: 60 Evans Hall, UC Berkeley (주차: Maxwell Garage, Stadium Rim Way)

배우자를 위한 기도

지난 주일 회합시, 앞으로 하모니 회합 마침 기도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영광송'을 바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굳이 배우자를 위함이 아닐지라도 좋은 만남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는 내용이니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하느님,

어느곳엔가 있을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제 운명의 그 사람을 지켜주소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힘겨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밝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서로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신의 삶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써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써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서로 준비하여 만나면
이 사람이 하느님께서 지켜주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주소서.

그리하여 두 사람 모두 노력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삶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영명축일 - 축하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1/11: 방민기 마르티노

11월 생일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


11/6: 이영재 루카

11/20: 안진영 로사

11/21: 정현준 요한

11/25: 강보라 카타리나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최근 선종하신 김중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i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나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

7 Attachments

